

안개 속 앞이 안보여...

하룻밤 새 후 두대 같은 눈에 빠져

짙은 안개 속 가드레일이 망가진 커브길에서 하룻밤 새 차량 두대가 잇따라 눈두렁에 빠져 2명의 운전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4일 새벽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용전동 용전다리 앞 삼거리에서 광주87다39××호 1t 포터 트럭(운전자 노모·36)이 접단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5m 높이의 눈으로 추락했다. 앞서 5시간 전인 새벽 1시22분께도 60부94××호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성모·31)가 같은 장소에 떨어졌다.

담양~침단 간 도로에는 약 1m 높이의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만, 사고 지점 인근 가드레일은 10여m 정도가 망가져 누여 있는 상태였다. 또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상이 어두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데다 안개가 짙게 깔려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외제차 페라리 경품

444대 당첨 '소동'

삼성플라자, 3명만 다시 뽑을 듯

경기도 성남에 있는 백화점 삼성플라자 분점당이 2억8천만원 짜리 수입 명차 '페라리 F360'을 내건 경품 행사를 벌였다가 당첨자가 무려 444명이 나왔다.

4일 삼성플라자에 따르면 이 백화점은 지난달 1~12일 페라리 경품행사를 통해 3만9천여 명에게 경품 응모권을 배포했다. 응모권의 공란 26개 가운데 9개를 동전으로 긁어낸 뒤 이 9개의 숫자와 공개추첨한 숫자 9개가 일치할 경우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확적으로는 당첨확률이 수 백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당첨자라며 응모권을 가져온 사람은 444명이나 됐다.

백화점 관계자는 "정답을 미리 보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상당수 당첨자가 공개추첨 결과를 본 뒤 응모권에 있는 해당 숫자를 긁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응모권의 숫자배열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이 행사 전에 뿌린 홍보전단에는 "당첨 숫자와 일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페라리를 증정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응모권에는 "당첨자가 세 명 이상일 경우 당첨자 중 세 명을 추첨해 선정하겠다"고 적혀 있어 당첨자 숫자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플라자 측은 444명 가운데 세 명을 6일 추첨해 페라리 3대를 증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대학병원 전공의도 '재수' '삼수'

성형외과·내과·피부과 지원 몰려

흉부외과·산부인과는 미달 사태

광주 J대 의대 공모(30)씨는 지난 1일 마감한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보고 "의대 입학에 비해 삼수를 했는데, 또 '재수'다"라며 한탄했다. 이미 지난해 성형외과에 지원했다가 낙방, 올해 또다시 지원했지만 1명 정원에 4명이나 몰렸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대학병원·종합병원이 2007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지난 1일 마감한 결과,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이 미달 사태를 보였다. 반면 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피부과 등은 2대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에 2명을 모집했지만 1명도 오지 않았다. 소아과·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핵의학과 등 6개 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9명을 뽑는 외과에는 2명만 지원했고, 4명을 뽑는 응급의학과에 역시 2명만 지원해 정원을 못 채웠다. 반면 성형외과(2명 모집 4명 지원)·정형외과(5명/13명)·신경외과(3명/8명)은 2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 대조를 이뤘다.

조선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원자가 없었던 흉부외과에는 올해 1명이 지원해 위기를 넘겼다. 외과(4명/1명)·산부인과(2명/1명) 등은 올해도 2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광주 기독교병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 과 3명·2명을 뽑는 외과·산부인과에 아

2007년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과목명	07 정원	지원자	과목명	07 정원	지원자
소아과	6	5	소아과	2	2
신경과	3	5	신경과	1	1
피부과	3	4	피부과	1	4
외과	9	2	외과	4	1
흉부외과	2	0	흉부외과	1	1
정형외과	5	13	정형외과	3	5
신경외과	3	8	신경외과	1	1
성형외과	2	4	성형외과	1	4
산부인과	3	2	산부인과	2	1
안과	3	5	안과	1	3

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소아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등은 겨우 1대 1 경쟁률을 보였을 뿐이다.

의대생 정모(26)씨는 "1년간 쉬며 당직의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미뤄둔 여행·공부를 하는 등 재수에 대한 각오는 다들 하고 있는 편"이라며 "무리한 경쟁을 피해 졸업 학교·수련 병원이 아닌, 타 지역·타병원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정과 선호 현상에 대해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의과 계열의 경우 지원자 부족 현상이 매년 되풀이돼 전문의 양성과 진료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는 경우 순환 당직이 되풀이돼 업무 과중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에서는 이 때문에 ▲비인기과를 대상으로 한 2차 지망 선발 허용 ▲산부인과 수련의 부조수당 지급 등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재수' '삼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마재숙 홍보실장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부서들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은 아이러니"라며 "의사 인력의 공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화물연대 파업 강행-경찰 강경 대처

광양서 2명 첫 구속

조합원 차량 압수수색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구속하고, 조합원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처하고 나섰다.

광양경찰청은 4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비조합원들의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 지회장 성모(40)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 광산경찰도 이날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 차량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열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켜본 뒤, 광주와 광양 등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이와 관련, 광양경찰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연행된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의 즉각 석방을 강력 촉구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 300여 명도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화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이날 광양항이 외부로 운송한 컨테이너는 1천여TEU로 평소 4천TEU에 비해 25%에 불과했으며, 부두에도 5만6천여TEU가 아직돼 있는 등 재고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 내에서 화물을 옮기는 '야드 트레일러'(Yard Trailer) 73대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 광양항에서 광양역 철송장까지 화물 운송을 맡길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농민들 내일 反FTA 시위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김덕중·이하 농민회)은 6일 오후 광주역과 광주공원에서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1천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운기 등 중장비 동원 여부 ▲폭력시위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평등인도저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 회대단지!
 (월세) 100만원 (매년 1% 인가)
 수권신도시 파오래
 062-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즉제불만처리부서입니다. 규정에 드립니다.
 누락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ac.or.kr
 한국신문협회부서

술값 인내고 도주-약봉지 때문에 '덜미'

성다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호프집 주인을 때리고 달아났던 강도사범 해 용의자가 테이블에 두고간 약봉지 때문에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
 ○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송모(42)씨는 지난 6월23일 새벽 0시48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J호프집에서 맥주와 안주(2만6천원 상당)를 시켜 먹고 화장실 참으로 물레 도망가려고 했는데, 주인 이모(여·52)씨에게 걸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달아났다는 것.

○그해할 약을 먹어온 송씨는 급한 마음에 테이블 위에 약약 4개가 들어있는 약봉지를 두고 갔는데, 경찰은 봉투에 적혀있던 약국 이름을 단서로 6개월간 탐문수사 끝에 송씨를 검거.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황금어장
 대표번호 1588-7677
 광주점 02-518-7800

2007년 1월 1일

상해(화기/50수) 3월
750,000

비닐(화기/40수) 6월
820,000

2007년 1월 1일
250,000

2007년 1월 1일
130,000
150,000

179,000

광주-해상도 천세기 휴양
 2006.12.21 ~ 2007.2.11

종류	일련	방선여	대형주택(4인용)	중형	대형주택(2인용)
1. 1인용	1. 1인용	1. 1인용	1. 1,000,000	1. 1,000,000	1. 1,000,000
2. 2인용	2. 2인용	2. 2인용	2. 2,000,000	2. 2,000,000	2. 2,000,000
3. 3인용	3. 3인용	3. 3인용	3. 3,000,000	3. 3,000,000	3. 3,000,000
4. 4인용	4. 4인용	4. 4인용	4. 4,000,000	4. 4,000,000	4. 4,000,000
5. 5인용	5. 5인용	5. 5인용	5. 5,000,000	5. 5,000,000	5. 5,000,000
6. 6인용	6. 6인용	6. 6인용	6. 6,000,000	6. 6,000,000	6. 6,000,000
7. 7인용	7. 7인용	7. 7인용	7. 7,000,000	7. 7,000,000	7. 7,000,000
8. 8인용	8. 8인용	8. 8인용	8. 8,000,000	8. 8,000,000	8. 8,000,000
9. 9인용	9. 9인용	9. 9인용	9. 9,000,000	9. 9,000,000	9. 9,000,000
10. 10인용	10. 10인용	10. 10인용	10. 10,000,000	10. 10,000,000	10. 10,000,000